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 새 예배당에서 드릴 예배순서 확정 -

우리교회는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여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로 교역자 세미나를 갖고 예배순서를 확정지었다.

I부예배(가족예배)는 오전 9시부터 50분간 유아부와 유치부를 제외한 온 가족이 함께 드린다. 예배시에는 성서교육시간에 십계명을 교육하고 헌금시간에는 유년·초등·중등·고등부 찬양대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드린다. 10시부터 30분간 유년·초등·중등·고등부 그리고 장년 1(30대), 2(40대), 3(50대), 4(60대), 5(70대 이상) 반으로 나누어 교회학교 분반공부를 한다.

II부예배(일반예배)는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드리며 예배는 Hand Bell 찬양대가 입례시 그리고 헌금송을 맡는다. 특히 10시부

터 시작되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II부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III부예배(청년예배)는 오후 1시30분부터 27분간 찬양을 드리고 2시에 찬양대 입장과 함께 온 회중이 기립하여 함께 찬양하므로 예배가 시작된다. 안내위원과 성경봉독은 청년들이 맡고 3시 10분까지 예배를 마치면 3시

20분부터 4시 45분까지 분반에 들어간다.

모든 분반공부는 235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지도 교역자의 기도 그리고 각 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후 광고 후 분반 공부에 들어간다. 유아·유치부는 I, II, III부 예배시간에, 새가족부는 예배후마다 시간을 갖는다. 대학 청년, 새가정, 사랑, 에바다, 영여성경반은 III부예배후 분반을 한다.

한편 실력있고 영력있는 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키위해 12월초에 교사대학을 열어 2년이상 주일학교 교사경력 소지자에게는 7시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5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여 2001년 교사로 임명키로 했다. 12월초 새벽기도회 후 1시간씩 매일 강의를 개설된다.

새성전 입당 D-71

요즈음 우리 교회에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입당 날짜는 코앞에 다가오고 할 일은 많으니 밤마다 잠이 오겠는가. 그래도 입당날이 되면 우리는 새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것이 분명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 저래 우리는 정말 기쁨 뿐이다.

주간사명자 대회일정

행 사	일 시	주 관
다 니 일 기 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 성도
다락방 읽은양찾기	10월 8일~11월 25일	각 다락방 별
전 도	10월 22일(주일)	각 교구
태 신 자 작 정	10월 8일~10월 29일	전 성도
금 요 기 도 회	20(금) 오후 9시	1,2교구, 안드레, 루디아, 대학부, 청년부, 할렐루야
70인 전 도 대	21일(토) 오후 3시	1,2교구, 모세남선교회, 한나여전도회

새 가족 잔치 열린다

새 가족부에서는 금년에 등록된 새 가족을 위한 잔치를 10월 20일(금요일) 오후 6시 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 잔치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교구별 교제가 있을 예정이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금년에 등록된 새가족 모두와 새가족 교사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사명자 대회 조직 가동되다

매년 교회설립 기념일 50일전에 기도와 전도를 위한 사명자대회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였다.

이중윤 목사를 대회장으로 하고 지도에 이규정 목사, 본부장에 최중시 장

로를 임명한 사명자 대회는 진행분과, 홍보분과, 전도분과, 기도분과, 교육분과, 안내분과, 재정분과로 나누어 업무지침과 진행위원을 임명하였다.

▶ 3면에서 계속



네 구속자는 누구인가

성경 : 이사가 41장 8 ~ 16절



이종운 목사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건지는 고레스 왕을 반대하기 위해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열국들은 우상을 만들고 힘을 합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열국들이 힘을 합치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사가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 두려워 하지 않을 이유

(1) 그들은 여호와의 종

"내가 택한 아굽아"(8절), "너는 나의 종이라"(9절).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하셨으나 유대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적자를 물리치시는데 유대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이사가 40 - 60장 사이에 특별한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말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번영의 복을 주리라'고 약속 하셨습니다(창 26:24).

(2)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

"내가 택한 아굽아"(8절), "내가 너를 택하고"(9절).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열국에 비해 불꽃 없고 미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의모를 보시지 않고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기억하시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

"나의 벗아브라함의 지순아"(8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벗이라고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은 열방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하셨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습니다(약 2:23).

(4)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유대 백성을 당신의 종으로,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열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원인은 택함 받은 사실에 있고 구원의 성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5) 하나님이 곧 세계 하신다

"내가 너를 곧 세계 하리라"(10절).

인생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환경 따라 흔들리고 바람을 쫓아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므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6)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10절).

10절에는 '참으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는 '도우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안내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의로운 방법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이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2. 유다를 핍박하던 자들이 망하는 이유

노하던 자들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와 욕됨 당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루고 싸우던 그들이 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계의 동풍이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시겠다고 하심으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고 열방은 망했습니다.

3. 유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별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이다"(시 22:6). 별래는 밝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픔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가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별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속하시므로 유대 백성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속자가 되심으로 유대 백성들은 존귀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으로 타작 기계가 곡식을 떨듯이 '신들'과 같은 강한 원수를 파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16절). 유대 민족이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 민족으로 예포된 교회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파하시고 그 말아레 두실 때에 교회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며 교회는 그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위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풍성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16절). 기쁨을 방해하던 것이 제거되고 그 일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 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신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백성들의 구속자는 고레스를 보내시고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타작기계로 사용하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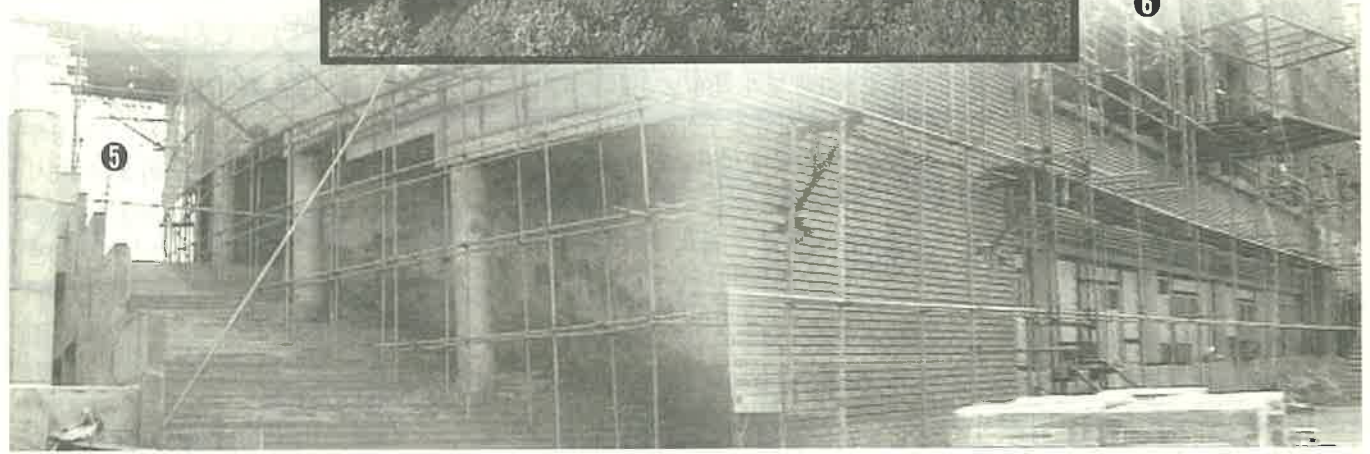
유대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일 힘입고 승리의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서울교회



- ①, ② 1층 웨스트민스터 홀
- ③ 5층 복도와 벽 모습
- ④ 뒤에서 바라 본 본당
- ⑤ 서울교회 예배당 입구
- ⑥ 외벽 벽돌쌓기



2000 사명자대회 조직

대회장 이종윤 목사

지도 이규정 목사

본부장 최중시 장로

진행분과

- ◆지도: 이규정 목사 ◆책임: 최중시 장로
- ◆진행: 임상현 집사
- ◆실행위원: 김성준, 김상욱, 최영렬, 서운식
- ◆통계: 오형철 집사
- ◆실행위원: 이남성, 김규태, 이학주, 김현정
- ◆발송: 이태상 집사
- ◆실행위원: 한명순, 한정아, 김정란, 주경자, 최영란, 박경섭, 김혜영, 나기태

박한옥, 서영희, 조상희, 황노진, 박민숙, 조성업, 송금자, 권순단, 김양희, 위성남

전도분과

- ◆책임: 민순구 장로 ◆총무: 이상호 집사
- 제1전도대** ◆지도: 이성득 목사
- ◆교구장: 하영수 장로, 황정욱 집사
- ◆간사: 강동호, 김인숙, 최종렬, 이자혁
- ◆교구: 1교구, 2교구
- ◆실행위원: 각 다락박 장
- 제2전도대** ◆지도: 정윤돈 목사
- ◆교구장: 정병무 장로, 임훈규 장로
- ◆간사: 윤성남, 최일준, 최차순, 박미혜

- ◆교구: 3교구, 4교구
- ◆실행위원: 각 다락박 장
- 제3전도대** ◆지도: 고경선 목사
- ◆교구장: 민순구 장로, 노송성 장로
- ◆간사: 탁경준, 박영옥, 박성현, 김정란
- ◆교구: 5교구, 6교구
- ◆실행위원: 각 다락박 장
- 제4전도대** ◆지도: 고경선 목사
- ◆교구장: 이영기 장로, 서문석 장로
- ◆간사: 이상호, 권경옥, 김광욱, 김정운
- ◆교구: 7교구, 8교구
- ◆실행위원: 각 다락박 장
- 제5전도대** ◆지도: 이규정 목사

- ◆교구장: 윤봉준 장로, 최중시 장로
- ◆간사: 이동만, 최영란, 김성준, 한명순
- ◆교구: 9교구, 10교구
- ◆실행위원: 각 다락박 장
- 제6전도대** ◆지도: 이규정 목사
- ◆교구장: 왕경래 장로, 이변생 장로
- ◆간사: 이우상, 김혜영, 김관홍, 나기태
- ◆교구: 11교구, 12교구
- ◆실행위원: 각 다락박 장
- 교육분과**
- ◆지도: 이성득 목사 ◆책임: 김태기 장로
- ◆총무: 홍성주 집사
- ◆실행위원: 각 교회학교 남녀부감

먼지조차 은혜스러운 새성전 공사

김양희 집사(9교구)

할렐루야!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Malaysia(말레이시아)에 살던 저는 한국에 올 때면 서울교회 방문교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온과 행복감이 마치 숨겨둔 나의 보물함에 비밀스럽게 왔다 간 것 마냥 말레이시아 교인들에게 미안감(?) 조차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올 봄 우리의 진로를 서울로 옮기셨습니다. 드디어 서울교회에 등록교인으로 출석하면서, 약간은 서먹서먹했지만 이인선 권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사랑어린 배려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새성전 청소일을 봉사해 줄 것을 광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봉사도 선별이 되어 있는 양, 마치 허드렛 일은 따로 할 사람이 있는 것 마냥 가려서 하던 것

차 교만지심(驕慢之心)이라고 말씀중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낮아짐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야지! 웬지 신바람이 났습니다.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들고 새성전을 들어서는 순간, 공사중인 성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써 최선을 다했던 다윗과 솔로몬에 뒤지지 않는 서울교회 전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빗자루따라 날리는 톱밥먼지 조차도 은혜스럽고 목수 아저씨의 손길따라 하나하나 달라져 가는 중예배실의 모습...

Hallelujah! 일주일에 두번 청소하러 가는 날, 야릇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그 옛날 죽을만큼 사랑하던 사람 만나러 가던 그 때 그 느낌 조차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먼지터널을 통과한냥 뿌영게 먼지를 덮어쓰고 돌아오는 버스 안, 나른한 몸과는 달리 마음은 얼마나 가볍

고 기쁘는지...

버스안의 승객들과도 나누고 싶은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과 기쁨... 아시나요?

앞으로 70여일 남은 감격의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주(主)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되새기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 점점 더 험해져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솔선해서 감당하는 내적인 교회를 더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사연합기도회

- 27일(금) 오후 8시 -

우리 교회 13개 교회학교 교사 연합기도회가 오는 27일(금) 오후 8시 2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이번 교사기도회는 새 예배당 입당 후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새해 교회학교 교사 지망자는 모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동정 ■

■ 손영준 목사는 지난 13일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갔다. 오는 2001년 2월말까지 영어 동시통역은 김사라 집사가 맡는다. 손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은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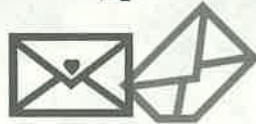
: 최광열 집사, 김은애 권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장년부- 16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충성!! 문안인사 드립니다

고병갑 상병



안녕하십니까? 고병갑 상병입니다.

이제서야 저의 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늘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멀리서나마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 몇자 적어 보냅니다.

그저 처음엔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환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도 했고, 하지만 편지가 한통 두통 늘어 갈때면 항상 이렇게 잊지않고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있는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교회에서는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제 이름조차 기억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편지중에 하나일지라도 그러한 편지가 저에게 힘들고 따분한 군 생활에서 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 시간만큼은 웃을 수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 대한 관심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남은 군생활 서울교회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멋진 군인으로 있다 사회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회에도 많은 사랑과 복이 있길 기원하며 전 이만 근무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충성!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살롬경로대학 · 서울성경대학 · 목회자신학세미나위해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